

12 월 농식품 해외시장동향 및 전망 [미국-뉴욕]

□ 농림수산물 수입동향

(단위: 천불)

구 분	10월 당월		1~10월 누계	
	금액	전년동기 대비(%)	금액	전년동기 대비(%)
농림축수산물 전체	10,733,190	-2%	110,398,523	5%
소 비 재	5,081,463	4%	51,109,331	5%
중 간 재	1,950,239	-2%	20,865,049	19%
수 산 물	1,344,152	-11%	13,653,112	1%
벌크농산물	1,230,340	-27%	14,416,075	-10%
임 산 물	1,126,995	24%	10,354,957	14%

자료원 : USDA FAS(Foreign Agricultural Service) 수출입통계 자료 (10월 기준 자료)

※ 소비재 (야채, 과일, 와인/맥주, 스낵류, 가공 야채과일, 육류, 견과류, 커피, 낙농제품, 향신료, 화훼류 등)
 중간재 (가축, 식용기름, 설탕류, 종자류 등)
 수산물 (어류, 갑각류, 해조류 등)
 벌크 농산물 (고무, 코코아, 커피 원료, 담배, 차류, 곡류 등)
 임산물 (목재류, 펄프 제품 등)

□ 주요품목 수입동향

(누적금액, 단위: 천불)

품목	작년 (‘11.10)	금년 (‘12.10)	증감%	1위		2위		3위		한국산
				국가	금액	국가	금액	국가	금액	금액
배	81,733	57,910	-29%	아르헨티나	28,097	칠레	12,327	한국	11,124	11,124
신선버섯	85,380	97,899	15%	캐나다	90,281	멕시코	6,998	중국	4,293	1,902
인삼(엑기스)	18,592	20,065	8%	프랑스	9,745	중국	4,917	한국	3,059	3,059
인삼뿌리(재배)	18,098	27,299	51%	중국	16,682	홍콩	4,578	캐나다	2,839	1,498
스낵류	5,316,120	5,615,385	6%	캐나다	2,544,576	멕시코	1,272,939	독일	237,835	25,773
가공과일채소	5,243,482	5,611,024	7%	캐나다	1,103,641	멕시코	977,366	중국	826,283	43,640
낙농제품	1,104,614	1,336,908	21%	뉴질랜드	551,384	캐나다	110,371	아일랜드	78,782	9,327
과채류주스	1,673,824	1,604,475	-4%	중국	533,710	브라질	250,992	아르헨티나	191,079	1,621
견과류	1,413,584	1,420,583	0.5%	베트남	327,886	인도	247,631	멕시코	218,566	1,164
와인/맥주	7,092,642	7,456,932	5%	멕시코	1,621,998	이태리	1,260,761	프랑스	1,120,728	5,709
화훼류	1,282,630	1,365,647	6%	콜롬비아	552,291	캐나다	225,911	네덜란드	156,093	1,702
커피(인스턴트)	974,576	980,359	1%	캐나다	328,925	콜롬비아	117,420	멕시코	120,021	6,492
향신료	1,039,324	1,084,884	4%	인도	218,799	인도네시아	175,164	중국	98,747	2,708
차류(허브)	538,832	563,926	5%	중국	115,196	캐나다	98,273	아르헨티나	70,396	6,420
종자류	794,655	1,185,048	49%	칠레	336,004	캐나다	219,287	아르헨티나	72,526	4,103

※ 자료원: USDA FAS(Foreign Agricultural Service) 수출입통계 자료 (10월 기준 자료)

※ 미국의 주요 식품수입국으로는 캐나다(24,100,064), 멕시코(14,365,572), 중국(8,343,545) 순이며, 일본(731,356) 27위, 한국(401,058)로 37위순으로 각국에서 수입하고 있음

※ 미국내 한국산 농식품 수입품중 인삼(뿌리, 87%), 가공과일채소(42%), 차류(25%), 커피(인스턴트포함, 20%) 등이 전년 동기 대비 수입이 증가했으나 낙농제품(-17%), 과일주스류(-64%) 등은 감소했음

○ 한국산 수입 증감내용

- 2012년 10월 한국산 농림 수산물 전체 수입액은 401백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9% 상승
 - 소비재 농축산물: 전년도 대비 236백만불에서 268백만불로 13% 증가
 - 수산물 : 전년도 대비 98백만불에서 90백만불로 8% 감소
 - 중간재 농축산물 : 전년도 대비 25백만불에서 32백만불로 27% 증가
 - 벌크 농산물 : 전년도 대비 5.8백만불에서 6.8백만불로 17% 증가
 - 임산물 : 전년도 대비 2,351천불에서 2,938천불로 25% 증가

□ 향후 시장 전망

○ 이슈 현안

- 1월 6일, '08년 제정된 미농업법 1년 연장 합의

- 미국 여야(민주, 공화) 의원들은 상하원 농업위원회에서 2008년 제정됐던 농업법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함
- 관련법을 통해 지난 49년부터 현재까지 우유 및 유제품의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왔으며 그 결과 우유의 유통 평균가는 갤런당 3.70센트선을 유지해 왔음
- 그러나 이번 연장된 기간은 불과 일년으로 유제품 가격 대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문가들은 두유나 아몬드 우유 등의 대체 식품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음
- 이에 낙농업 관련 종사자들은 임시적으로 관련법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신규법안을 발효시켜 현재 낙농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

□ 특정품목 시장동향 : 파프리카(Bell Peppers)

○ 현황

미국내 시장에는 초록, 빨강, 노랑, 오렌지 색상의 파프리카가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단감이나 딸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장기간 선도유지가 가능한 품목이다.

수입산의 비중이 20%가 넘는 파프리카는 품질이 양호한 캐나다산이 주로 수입이 되고 있으며 최근 주춤해진 멕시코산 수입량의 상당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. 캐나다산뿐만 아니라 고급품종으로 인정받는 네덜란드산이나 이스라엘산 등은 높은 가격에 상위고급 마켓에서 판매중이다.

○ 미국 내 파프리카 판매 동향

	파프리카 판매 총량(LB)	파프리카 소매 판매 총액(USD)	파운드당 평균 판매가
2011	457,641,165	\$916,805,707	\$2.00
2010	449,777,778	\$898,805,673	\$2.00

* FreshLook Marketing, (월마트 매출은 제외)

- 현재(12년 10월 기준)까지 미국내 수입된 파프리카 총액은 3억불 가량이며 그 중 캐나다산이 1.5억불, 멕시코산이 1.2억불, 네덜란드산이 1.9천만불 수준임.
- 올해 10월 기준으로 파프리카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7% 가량 상승했으며 유기농 파프리카의 경우는 수입량 중 78%가 멕시코산이며 네덜란드산과 캐나다산이 10% 정도를 차지함.
-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파프리카의 주요 산지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수확되지 않는 시기이며 품질이 다소 낮은 멕시코산이나 물류와 유통비가 높은 플로리다산이 시장에 주로 판매됨.
- 최근 멕시코산 파프리카의 생산이 주춤한 사이 네덜란드산과 캐나다산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나 전체적인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임.

○ 미국 파프리카 시장의 소비 특징

- 11년 그로서리 이용자 중 3분의 2이상이 구매할 정도로 대중적인 파프리카는 브로컬리, 토마토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소비되는 신선채소로 꼽힘.
- 알려진 바와 같이 파프리카는 색상에 따른 당도 차이가 있어 색상별로 소비자 선호도가 상이하나 보통 당도가 가장 낮은 초록색 파프리카의 선호도가 높은 편임.
- 일반적인 파프리카 프로모션은 계절별로 차이가 있으며 겨울에는 바비큐를 위한 에피타이저나 구워먹는 고기와 함께 곁들여 먹는 모습, 여름에는 신선형태로 샐러드나 타코류에 넣어먹는 모습을 광고에 담고 있음.

“<저작권자 ©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& kati.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”